

한국어촌어항협회장 인사문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한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반 다질 터”

고 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실장님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촌어항인 여러분!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모토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지한 것은 한 번의 고배를 마신 후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소중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상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일으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100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을 태안으로 불러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섬기는 정부, 내실있는 성장’을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과 바다를 통합 관리하던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수산분야 업무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수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원동력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각을 넓혀 수산업이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가공·유통으로 이어져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관광 상품화 하야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협회는 ‘어촌과 어항, 어장’이 수산식품산

업의 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어항시설물 안전점검과 다목적어항관리선 운영 등 어항관리의 효율화로 어항기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어항과 연안수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항정화 상시수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사업을 극대화 하여 연안어장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어촌어항의 관광진흥과 문화창달을 활발히 수행하겠습니다.

‘어촌·어항·어장’을 관광 상품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인들에게는 바다와 어촌어항의 아름다움과 정서 그리고 소중함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금년에는 특히 ‘어촌·어항·어장’을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한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으로 다질 것이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협회가 농림수산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굳게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협회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치사

“어촌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평 소 존경하는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원 여러분!

먼저 오늘 뜻 깊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2008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초청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2008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신년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전환기적인 해입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부문의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야 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아울러 우리의 어촌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의 우리수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힘을 합쳐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더욱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수산인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한국어촌어

항협회가 선봉에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이일에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잠재력이 높은 어촌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생산, 관광, 휴양 및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형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어항의 환경친화적 정비와 다기능어항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울산 정자항 등 2개항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내에 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104개 국가어항은 2012년까지 완공하고 지방어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어촌어항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과 어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촌 어항에 대한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수산업,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을 이룩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한층 더 진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한국어촌어항협회 2008년도 정기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촌 어항인 여러분의 행운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